'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다큐영화 제작

조선간호부회 초대회장 지낸 간호선교사

대한간호협회 전신인 조선간호부회 초대회장을 지낸 서서평(E. J. Shepping) 간호선교사의 발자취를 조명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제작됐다.

CGNTV가 한국교회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든 작품으로, 4월 26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이에 앞서 특별시사회가 4월 3일 광주와 4월 4일 서울에서 있었으며, 4월 17일 서울에서 한 차례 더 열린다.

서서평 간호선교사는 의료선교와 사회계몽에 일생을 바친 인물이다. 1880년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간호학을 공부했다. 1912년 32세에 광주기독병원 간호부장으로 한국땅을 밟았다. 세브란스병원 간호학교에서 간호교육에 이바지했다. 1934년 54세를 일기로 타계할 때까지 가난하고 버림받고 병든 이들을 위한 간호와 교육 및 사회복지사업에 헌신했다. 장례는 광주시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은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 내 선교사동산에 안장됐다.

영화 포스터

CGNTV는 독일 비스바덴, 미국 뉴욕, 전라도 일대와 제주도까지 돌며 1년의 제작기간을 거쳐 4K 초고화질(UHD) 촬영으로 서서평 간호선교사의 삶을 생생하게 담았다. 고증자료를 토대로 한 다큐멘터리와 재연드라마를 한데 묶어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다. 배우 하정우 씨가 내레이션을 맡아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제작진은 "낯선 땅 조선에서 작은 밀알이 되어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고 짐을 덜어준 한 여인의 슬픔, 한 그리스도인의 뜨거움, 한 선교사의 치열함으로 가득한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또한 "서서평은 평생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검정 고무신을 신었으며, 무명 한복을 입고 다녔다"면서 "조선인처럼이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다간 인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간호사회는 매년 서서평 간호선교사 추모 기념행사를 열어 고인의 숭고한 삶과 업적을 기리고, 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하고 있다. 올해부터 서서평장학금을 신설해 간호대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보건진료소 건강증진대회 개최

제9회 보건진료소 건강증진대회가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명수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보건진료소장회가 주최했다.

이날 건강증진대회에서는 우수사례로 '한방기공 및 신바람건강체조'(경기 김포시 송마리보건진료소), '햇빛마을 건강더하기'(전남 광양시 대죽보건진료소), '난타를 통한 우울증 개선 프로그램'(전북 정읍시 백암·회룡보건진료소), '아자! 즐거운 인생 一老一伎 계획'(충남 금산군 남일보건진료소) 등이 발표됐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농어촌지역에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주민들의 요구는 질병치료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보건진료소에서 일차보건사업 외에 건강증진, 심뇌혈관질환 예방,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등 다양한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회식에서는 나경원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홍철호 국회의원, 박준영 국회의원, 정인화 국회의원,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김남초 제2부회장 대독) 등이 축사를 했다. 양승조 국회의원, 김광림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의원, 박찬우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윤종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예수대학교 김금자 총장 취임

예수대 김금자 총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학교법인 예수대학교 제5대 총장에 김금자 전 예수대 간호학부 교수가 취임했다. 취임식은 3월 15일 오전 교내 씰채플에서 종교계와 학계 내빈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금자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엄중한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임하는 동안 대학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진리와 사랑'이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한 기독인성교육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교수·학생·직원 모두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학문과 사회복지학문의 특성과 강점을 토대로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따른 세계 여러 대학들과의 국제교류를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대학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문 네트워크를 재구성해 취업, 진로, 심리상담, 졸업생 관리, 기부 활동 등 연계를 활성화시키겠다"면서 "지역사회 기관 및 학부모와의 유대를 강화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정 기자 sjchoi@

병원수술간호사회 총회…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주력

병원수술간호사회(회장·양진기)는 제30회 정기총회(제10회 대의원총회)를 'with the most trusted OR nurse' 주제로 3월 17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병원수술간호사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회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위원회별 이사회를 열 계획이다. 근로환경 실태 파악을 위해 중소병원 관리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유럽수술간호학회(EORNA) 및 아시아수술간호학회(ASIORNA)에 참석한다. 대한외과감염학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회원 복지증진을 위해 후원금 지급에 힘쓰기로 했다. 체계적인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키로 했다.

개회식에서는 박영우 병원간호사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문현미 병원수술간호사회 재무이사가 공로상을 수상했다. 신상훈 한양대 연극영화과 교수가 'Fun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주제로 특강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남자간호대학생 자긍심과 매력 보여줘

동서대 학생, JTBC '뭉쳐야 뜬다' 출연

남자간호대학생의 자긍심과 매력을 잘 보여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동서대 간호학과 4학년 진창훈 학생(사진 왼쪽)과 정윤식 학생(오른쪽)이 JTBC '패키지로 세계일주— 뭉쳐야 뜬다'에 출연했다. 베트남·캄보디아편으로 2월 21일~3월 14일 매주 화요일 10시50분 총 4회 방영됐다.

'뭉쳐야 뜬다'는 대한민국 대표 가장 MC 4인방(김용만·김성주·안정환·정형돈)과 일반인 지원자들이 패키지 여행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다.

두 학생은 졸업 전 재충전 시간을 갖고 글로벌 체험을 하고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에 지원해 선정됐다. 이들은 지원서에서 동서대가 운영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프로그램(DAIP·Dongseo Asia Initiative Program)에 참여한 경험과 심폐소생술 BLS Provider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남자간호대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잘 보여줬다. 함께 출연한 여행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친화력을 보여줬다. 철저한 준비성과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모습으로 호평받았다.

진창훈 학생은 "남자간호대학생과 남자간호사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방송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다"면서 "이번 여행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좋았고, 졸업 후 전문성을 갖춘 멋진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학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위암 적정성평가 1등급 기관 98곳

위암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98개로 전국에 고루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은 '2차 위암 적정성평가' 결과를 3월 24일 발표했다. 위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순위 2위, 사망률 3위를 차지한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위암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2차 평가는 2015년 1~12월 원발성 위암으로 수술(내시경 절제술·위절제술)을 실시한 221개 기관,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21개 기관 가운데 종합점수 산출기준에 해당되는 기관은 114개였다. 이중 1등급을 받은 곳은 98개(86.0%)로 전국 각 지역에 고루 분포해 있었다. 2등급은 9개(7.9%), 3등급은 4개(3.5%), 4등급은 3개(2.6%)였으며, 최하등급인 5등급은 발생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수술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여부 △치료와 예후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림프절 절제 여부 △수술 후 적기에 항암제 투여 여부 △수술 후 사망률 등 총 19개 지표를 평가했다.

주요 평가지표 4개의 평가결과 1차 평가 대비 모두 결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 위치파악 등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진단적 내시경 검사 결과가 충실하게 기록됐는지 평가하는 '위절제술 전 진단적 내시경 검사 기록률'은 98.1%로 1차 평가 대비 0.7%p 상승했다.

'불완전 내시경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은 84.4%로 1차 평가 대비 8.1%p 상승했다. 내시경절제술 후 절제면에 암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추가로 위절제술을 권고하고 있다.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은 1차 평가 대비 1.4%p 오른 85.4%로 나타났다. 위암절제술 후 적절한 시기에 항암화학요법을 투여해 재발방지 및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절제술을 받은 후 입원기관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한 환자 비율인 '수술 사망률'은 전체 평균이 0.66%로 나타나 1차 평가 보다 0.22%p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

한편 병기별로는 1기(75.7%), 3기(11.5%), 2기(9.8%), 4기(3.0%)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조기에 발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최근 내시경 진단 등의 수준 향상 및 건강검진 확대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성별로는 남성(68.7%)이 여성(31.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령층은 50~70대(78.8%)가 대부분이었다. 남성은 60대(32.7%), 여성은 70대(28.1%) 환자가 가장 많았다.

김선동 심평원 평가2실장은 "위암 2차 적정성평가 결과가 1차 평가 대비 개선된 것은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료기관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향후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위기관 등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강화해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암예방 가능하다' 국민 인식 향상

암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난 10년간 크게 개선됐다.

국립암센터는 '제10회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해 그동안 수행해온 '암 예방 인식 및 실천 행태 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결과 '암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지율은 2007년 53.0%에서 2016년 66.8%로 증가했다.

암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의 실천을 결정했거나 이미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암예방 실천률'도 같은 기간 39.3%에서 49.9%로 늘었다.

암예방을 위한 10대 수칙인 '국민암예방수칙' 인지도는 2007년 45.6%에서 2016년 68.5%까지 상승했다.

신체활동과 절주, 식이를 제외한 10대 수칙 항목별 실천률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2007년 55.1% 대비 2016년 54.0%로 감소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실천율의 절반 수준인 25.7%에 불과해, 실천의지는 높지만 실행과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 실천율은 2007년 69.1% 대비 2016년 56.4%까지 감소했다. 음주에 대한 예방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실천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혜진 기자 hjjoo@

간호사신문 |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29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기술직 공무원 간호직 보건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국가면허시험 간호사국가고시 위생사 연세대 RN-BSN
최다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적극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2017. 1월 대방열림고시학원 직강 현황 모습

★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점 ★
과목별 수험생 선호도 1위 교수진 구성
매년 기술직 공무원 최다합격자 배출
수강생이 가장 많고 입소문으로 유명한 학원
학원직강을 그대로 촬영한 최신 동영상강의
최고의 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
최신 스마트폰 동영상 강좌 시스템
체계적인 시스템 및 학원직강 연중 무중단 진행
매월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2018 연세대 RN-BSN

노성신 교수
db 대방열림 개강일 : 7월 8일 / 선착순 60명 접수중
오직 연세대학교 RN-BSN을 위한 특화된 강의로 직강 및 동영상 강의 진행
상담 문의 02-823-4700 서울 지하철 1호선 대방역3번출구 빕스 우측건물(1층 피자헛,2·4층학원)
www.yulimgosi.com